

위기 극복·혁신, 新 성장동력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경제단체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민간제안-정부지원 활성화 돼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불확실성 대응 위해 혁신 필요”

구자열 무역협회장
“위기극복의 길 새롭게 개척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첨단기술 혁신 막는 장벽 철폐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강조했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과 혁신, 기업가정신 발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경영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

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다음달 말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법률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해 시행 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사관계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그는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등 커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년 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 아래 높아진 환경 의식과 산업구조의 대변화라는 커다란 과제까지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정부 당국도 변화의 골든 타임

을 놓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기업이 새로운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가가 큰 틀에서 기업 성과에 플러스 되도록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잘 만들면 기업은 국가적 과제를 내뉘어주고, 활용 가능한 모든 톨을 동원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현재 무역인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보호무역주의 심화,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회장은 “많은 경제주체 가운데 특히 기업에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가계부채 관리 강화... 디지털 혁신 속도

금융권

올해 금융권의 새해 화두는 금융 안정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금융질서는 코로나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을 선점해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2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이나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4~5% 목표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 목표를 코로나 이전과 같은 4~5%대로 잡았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목표치(6.99%)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기업 부채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총재는 “그간 높아진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호작용하며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되 금융지원 정상화과정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위협요인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다.

정 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



이주열 한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감원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보협회장 정지원 손보협회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은총재
“가계부채 관리 강화, 위험요인 점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기존금융 넘어 비금융 경쟁력 확대”

스테스트를 정교하게 실질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수집 등 디지털 혁신 속도 ↑

금융권은 올해 본격적으로 경제·금융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을 앞당긴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중석몰족(中石沒嫌·정신을 집중하여 온 역량을 다하여 일을 추진하면 놀라운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 원장은 “데이터 활용인프라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금융산업의 성장과 도약을 탄탄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수집·분석기술을 강화해 기존의 금융을 넘어서는 비

금융생활서비스로 진출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보유한 금융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금융데이터, 가상자산과 가상공간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금융을 넘어서 가상자산과 가상공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 속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해 보험, 건강·자산관리, 간병서비스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 모집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업무영역에 걸쳐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부터 부가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정부 적극적인 지원정책” 한목소리

중소·벤처·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겐 2022년 새해를 맞아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기업가정신·정책 지원을 통한 자생·경쟁력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대표하는 ESG 대응과 디지털 전환 준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등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권철승 중소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새해를 맞아 2일 내놓은 신년사에 고스란히 담겼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소상공인이다.

권철승 장관은 중소기업이 올해 더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권 장관은 “방역 동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경영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 대응 등을 위해 마련한 역대 최대규모인 4조60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회장은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근본적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50조·100조 직접 지원안’이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활로 모색도 중



권철승 중기부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세희 소상공인회장 강삼권 벤처협회장

권철승 중기부 장관
“방역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조속히 시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중기간 양극화 해결 과제 상생문화 조성, 정책지원필요”

소·벤처기업들에겐 가장 큰 속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문화를 만들어가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삼권 벤처협회장은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니만큼 벤처기업들이 무한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호 기자 bada@